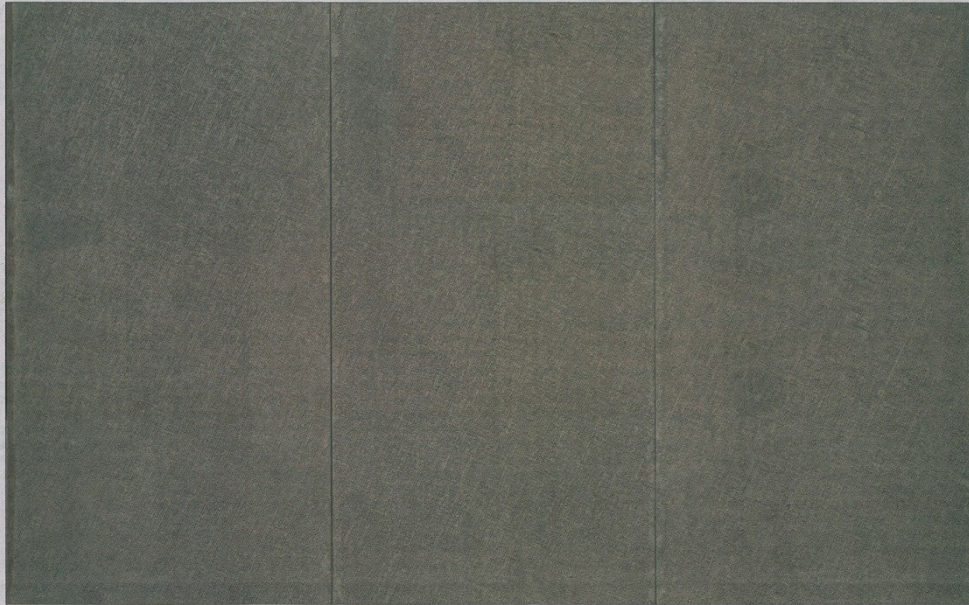


[조상인의 예(藝)] 하중현 '접합'...벽을 뚫고 나온 땀방울...흙빛 마대를 빛내다

May 20, 2017 | 조상인 기자

벽을 뚫고 나온 땀방울...흙빛 마대를 빛내다



하중현 '접합(Conjunction)' 79·31·1979년작, 150x226cm. 마대 인쇄 유화, 시카고아트인스티튜트 소장

/사진제공=국제갤러리



필자: 조영 이무호

하중현 '접합(conjunction)'

조상인기자 ccs@sedaily.com

키를 훨씬 웃도는 벽을 맞닥뜨렸다. 그것도 앞쪽 좌우가 똑 같아 어도 기도 못하는 벽이다. 어떻게 해도 벗어나지 못 할 벽 같은 막막한 느낌은 실 속 여지가 지어 도사리고 있다. 튀어나가는 바깥쪽 캔버스 열두도 나지 않는다. 하중현 (82년생)의 그림은 그 임팩트 벽을 뚫는 기분이다.

세계적 미술 명문인 시카고아트인스티튜트(SAIC) 박물관이 소장한 그의 1979년작 '접합(Conjunction)' 79·31을 접한 첫인상은 새벽에 소박이 맺힌 이슬 같았다. 동공들만 작은 물방울 같아 보이는데, 어떤 벽 뒤엔 알뜰한 흙을 파내어 놓은 듯한 촉반 위에 자리잡은 모습은 그림 가까이 다가서야만 보인다. 그러나 때론 캔버스가 아니라 활기찬 몸이 어디로 떠날지 모를 듯이 느껴진다. 그 뒷면에서 오일 필름을 밀어올려야 할 작업이라는 시도를 할 때면 그림이 말라보던 이슬이 아니라 땀이다. 벽을 뚫고 나온 그 고된 얼굴에 맺힌 땀방울이다. 때때 '땀방울'이 쓰여져 때론 물감은 해독제이며 제제의 표정을 담아 얼굴을 내민다. 무엇인 때의 지조를 뚫고 빼어낸 것으로 나뉠 수 있듯 광택 재단 마주할 수 있는 나 인격에 묻어있다면 내내 고인이 당당하다. 재료가 물감과 작가의 행위 그 이상으로 불어넣어줄 아껴야 작품이 된다.

1956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하중현은 일본의 평양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자랐다. "나와 내 부모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못 먹고 기근하던 때에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상황에서 미술대학에 가는 했지만 졸업장이 아니라 사서 자유롭게 작업을 행하면 안 되겠소."

젊은 화가에게는 그러나 물질적 고민보다는 정신적 빈곤이 더 괴로웠다. "아무리 잘 그려본들 사냥 물감, 사냥식 기법으로 새장을 달은 그림을 볼 것인데 나는 없지 않은가라



하중현 '작품(Work)' 73·13·1973년작, 마대 화방 유화, 120x240cm. 서울현대 미술관 R.구원희 소장

얼기설기 흩어 온 마대 뒷면에서 오일 물감 밀어올려 각종 완성 재료·작가행위 물이체치 이휘 칠조망·용수칠·신분지 등 활용 분단조각·담판한 사회상 투영도

는 고민은 그의 술한 땀을 어지럽혔고 "서양식 그림에서 똑 같이 내만의 독자적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은 강박에 가까울 정도였다. 청년 초창기였던 1960년대의 그는 당시 현대의 주류이던 국전(國展)에 거대인지 알고 미국의 전위예술을 시도하는 야망까지도 없었을 듯 보였다. 인물·정물·풍경 같은 구성화하는 안목까지 잡았다. 구체적인 형상 없이 재료, 그 자체와 작가의 즉흥적 표현을 강조한 '정보드렐(informel·비정형미술)' 경향이 강했다. 오히려 입체적인 추상 작업에 몰두해 순수화·철조각·신분 때처럼 그림 위에 붙였다. '담판한 시대와 더불어 살았을 때부터이 착각적으로 운동할 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철조각 배한 흙빛 그림이 풍은 은반 조각의 아름, 다 굵어지 가는 뱃줄을 이어놓은 작품은 드르온 남부의 건강함을 시사성을 투영하고 있다. 유산 체제 아래 늘 검열을 받아야만 했던 신분과 인쇄되기 전 신문을 출판이 난이든 '신문지'를 비롯해서 어디로 할지 모르나 결국 재단으로 돌아오는 용수칠, 흰겨울도 파고드는 나사, 눈꽃도 더러움도 뒤에나 온 유지 소독의 소독도 마찬가지다. 프

푼은 오히려 일본에서 먼저, 더 많이 팔렸고 지금은 이후와 그 더불어 일본미술관이 가장 많이 소장한 한국인 화가로 꼽힌다. 일본 평양가 나카하라 유스케 (1931-2011)는 "근대화와 과정에서 재주있는 사람들은 내나 할 것 없이 사냥으로 유학가 사구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소중했던 문양의 미술을 팔기 힘들 때 하중현에게서 진짜 문양을 발견했다"고 호평했다.

총리대 미술대학 교수로 30년 재직하고 서울시립미술관장(2001-2006년)을 지낸 그가 모든 작품을 내려놓고 오직 작가로 돌아오자 때마침 세계 미술계가 그를 불러냈다.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린 대규모 회고전에 이어 2014년에는 뉴욕의 불멸에도 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열렸다.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열린 '단행' 전시도 하중현의 작품을 세계 전역으로 알리는 분수였다. 지금은 수평처럼 앞면의 갤러리 파리의 전시장에서 개인전이 열리고, 다음 달에는 런던 전시장으로 옮겨간다. 이미 뉴욕현대미술관(MOMA) 송 비룡회 솔로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홍콩 M+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 등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일대천 원전 전시 때 파블로 피카소의 손자인 베르나르 피카소가 큐레이터. 칸타레일의 초대를 받아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중현의 작품은 서양미술의 사조 중 어디에 끼어놓아야 하나,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는가를 찾아내려고 애쓰더군요. 그래서 내가 답했죠. 내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는가에 대해 물어봐도 되지만 하지 말고 당신들과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하나. 그 다음 점을 찾아보면 오히려 연결시키기가 어렵고 설명하기 좋을 것'이라고요."

하중현은 2013년부터 선보인 신작에서 흙에서 사냥하는 연가(emako)를 그림 속으로 불러들였다. 마대 위로 밀려나온 벽에 연기를 솟아 올리고 그 표면에 지렁이처럼 연기가 빠져드는 일이었다. 뛰어난 연기와 그늘림은 자연스러운 그림자처럼 감정을 내려놓았다. 여전히 풍운이다.

